

## 국내 최초로 위암 이동검진버스 운행 개시

건협 대전·충남지부, 10월7일 발대식 가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암 이동 검진버스가 대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대전직할시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차량·장비·인력 등이 확보되어 이 검진버스 운행이 실현된 것.

한편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10

월 7일, 동구 관암1동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암 이동검진버스 운행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염홍철 대전직할시장, 김석중 시의회의장, 전무근 건협 사무총장을 비롯해 시의원·관계 공무원·협회 관련자·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검진버스의 성공적 운행을 기원해 주었다.

이 검진버스는 앞으로 이 버스를 이용해 관내 주민들의 무료 위암 검사를 하는데에 활용될 예정이며, 1단계로 관내 1,075가구 3만5천4백여명에 이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순회 검진에 들어갔다.(관련 기사: 본 책자 2쪽 건강을 지키는 현장)

## 11월 건강관리 공개강좌

한국건강협회 각 시도지부는 11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부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서울지부	11일(14:00)	성동구민회관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	임경호(백병원)
	25일(14:00)	성동구민회관	고혈압	이홍순(국립의료원)
부산지부	25일(14:00)	지부 홍보관	갑상선질환	김용기(부산의대)
대구지부	23일(14:00)	지부 홍보관	빈혈	
경기지부	26일(14:00)	지부 홍보관	호흡기질환의 원인·예방	이천우(지부 관리의사)
전북지부	25일(14:00)	지부 홍보관	부인암의 예방과 치료	이영호(전주 예수병원)
경남지부	26일(14:00)	경남여성회관	뇌졸중과 건강관리	

## 서울시민에 무료혈액형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가 “서울시민 무료 혈액형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혈액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확한 혈액형을 알도록 함으로써 유사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료 혈액형 검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9일까

### 당뇨병 조기발견 위한 혈당검사도

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새마을 농산물 직매장(강서구 화곡동 소재)에서 있었던 혈액형 검사에서는 503명의 주민이 검사를 받았다. 이날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자에게 혈액형 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 총 검사자 중 자신의 혈액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53.7%에 불과한 270명이었으며, 잘못알고 있거나(18.1%, 91명)모르고 있는 경우(28.2%, 142명)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 25일부터 강서구청과 강동의원(강동구 천호동 소재) 앞에서 실시된 무료 혈액형 검사에서는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혈당검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 결핵, '93.크리스마스 썰 발매

결핵 퇴치 활동 기금으로 사용

대한결핵협회가 '93.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판매를 시작했다. “썰”은 한장당 120원으로, 우체국 창구·학교·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연말까지 판매한다.

이 “썰”의 판매 수익금은 우리나라 결핵을 없애기 위한 결핵계몽·엑스선검진·결핵균검사·BCG생산 등에 사용된다.

## 불우이웃에

### 사랑의 선물전달

건협 대전·충남지부, 성심보육원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불우 이웃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 성심보육원(대전시 동구 하소동)에 과일과 양말 등을 전달했다.

대전·충남지부는 또 이날 보육원생들과 잠시나마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崔振學회장, 에이즈협회 감사로 선임

대한에이즈협회 정식 발족, 회장엔 강영훈 전총리



최진학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崔振學회장이 대한  
에이즈협회 감사로  
선임되었다.

대한에이즈협회는  
지난 10월 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  
장에 강영훈 전 총리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선임하고, 고문에 김수환 추기

경 의 14명, 부회장 최강원 서울의대 교  
수 의 1명, 감사 최진학 건협 회장 의 1  
명, 이사 김동건 아나운서 의 12명의 임  
원을 각각 선임하고, 정관을 채택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서서히 작업을 시작  
해 이번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대한  
에이즈협회는 앞으로 순수 민간단체로  
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후원사업과 에  
이즈 계몽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 국내유일의 건강교육과, 창설 30주년

이대 건강교육과, 기념학술제 등 가져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의 건강교육  
과가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  
월 22일 기념학술제를 이대 경영관홀에  
서 가졌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우  
리나라의 건강교육 발전을 위한 건강교  
육지도자를 배출시킨다는 목적아래,  
63년에 창설된 건강교육과는 지금까지

1천1백여명의 학·석사를 배출하였으  
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뿐인 건강교육  
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  
고 일선 보건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교육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지난 22일에 있었던 기념 학술  
제에는 김명호 연세대 명예교수, 함수근  
교육부 편수관리관, 홍문식 한국보건교  
육학회장·남철현 전국대학보건관리협  
의회장등이 참석해 창립 30주년을 축하  
해 주고 우리나라 학교보건교육 발전에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했다.